‘하루 100원 보시’ 불자 자긍심 높였다

백만원력 3년, 어떤 성과 일궜나

下 보시 동참으로 불자 자긍심 고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하루 100원 보시로 대작불사
개개인 풀뿌리 원력모여 결실
불자 정체성 · 자긍심도 고취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 이뤄”
“종단 모금문화 바꿨다” 평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19년 12월 진행된 ‘발우저금통 여는날’ 행사에서 발우저금통에 담긴 동전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 초 백년대계본부로 익명의 택배상자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로 가득 찬 발우저금통과 편지봉투가 가지런히 담겼고 손글씨로 또박또박 작성된 편지에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 성취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남북통일, 대한민국 불국토’ ‘조그마한 씨앗 종자가 커져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길’ 등의 문구가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발우저금통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직후 36대 집행부가 추진해야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하루 100원 보시가 1개월 3000원, 1년 3만 6000원의 원력으로 이어지면 한국불교 미래 청사진을 바꾸는 원력 결집의 대불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며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시행한지 3년. 전국 사찰과 단체, 불자들에게 발우저금통 10만 개 배포됐다. 발우모양 저금통에 실린 정성의 무게는 새로운 신행문화의 가능성을 알렸다. 생활 속에서 보시를 실천하게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자들의 동참으로 3년 전, 36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된 백만원력결집불사에는 현재까지 138여억 원이 모연된 상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초기 조계종 안팎에서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 각 사업별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숙원 사업으로 필요성이 항상 언급은 됐지만 재원에 대한 막연함에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십시일반 불자들의 모연이 시작되자 세간의 우려는 금새 환희로 바뀌었다. 전국 사찰을 비롯해 수많은 불자들이 각자의 원력으로 크고 작은 기금을 전했다.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 새싹불자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부모의 염원, 더 나은 불교로 거듭나길 바라는 불자의 원력까지. 개개인의 풀뿌리 원력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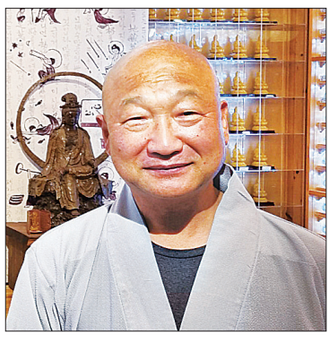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기대 이상의 결과물들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정기후원(CMS)과 전화(ARS), 지로, 계좌이체(저금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연된 순수 보시금으로 인도 부다가야에 첫 한국 전통사찰이 지난 5월 결실을 맺었다. 다음 달에는 신도시 포교 활성화 염원이 담긴 세종시 광제사 낙성식을 갖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광제사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계획수입 이후 10년만이기에 더욱 뜻 깊다.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자들은 “한 방울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은다. 십시일반 원력을 모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는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역할을 했다는 게 동참자들의 의견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종단이 추진해온 모금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측은 “한국불교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를 일깨우는 불사”라며 “한국불교 숙원 과제를 불자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숙인 친구’ 탄경 스님, 만해 실천대상 수상

우쓰미 아이코 교수 평화대상
문예대상 유자효 · 이민진 수상
8월 12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요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 청사 주차장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밤거리로 나서 나누는 간식이 200인분, 밥차에서 나누는 식사도 200인분 정도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이상묵 교수**는 ‘한국의 스티브 호킹’으로 불린다. 서울대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미국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해 전동 휠체어와 입으로 작동하는 마우스 등을 스스로 개발해 활발하게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우쓰미 아이코 교수**는 지금까지 3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일본의 아시아 · 태평양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규명하고, 전후 처리의 이중성을 폭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전쟁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일 양쪽 모두에서 외면 받아온 조선인 B, C급 전범의 삶을 집요하게 추적해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유자효 시인**은 54년 경력의 시인으로 그는 1974년 KBS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으로서 지켜본 현실의 경험을 시에 녹여내는 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공동 문예대상 수상자인 **이민진 소설가**는 4대에 걸친 재일교포 가족사를 다룬 소설 ‘파친코’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경계인의 시선에서 한국성을 잡요하게 파고든 작품으로 세계사 변방에 묻혀 있던 한국 근현대사를 세계 중앙에 올려놨다. 올해 초에는 애플TV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고 세계적 성공을 거두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2년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초격 스님, 광동학원 12대 이사장 취임

7월 15일 남양주 광동고서 취임
“실무형 이사장 되겠다” 포부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초격 스님이 실무형 이사장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학교법인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광동학원은 7월 15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운학관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초격 스님은 취임사로 “설립자 운허 큰스님과 명예이사장 월운 큰스님의 교육과 인재양성 원력을 계승하고 봉선사와 연계하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교육환경을 만드는 실무형 이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먼저 3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일면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광동학원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이신 운허 큰스님께서 설립하셨다. 76년 세월 동안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한 건학정신 발현에 앞장서 왔다”면서 “현장 속에 항상 답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을 잘 살피고 교직원 근무환경과 발전의견을 가감없이 듣겠다”고 다짐했다.

초격 스님이 이번에 취임한 광동학원은 앞서 스님이 밝혔듯 1946년 설립됐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의 길을 이어와 현재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광동학원에 소속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과 10대 이사장 화범 스님,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호산 스님, 흥국사 주지 화암 스님, 봉선사 부주지 도일 스님, 김남명 제25교구본사 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등 불교계에서 대거 참여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조응천, 오영환 국회의원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외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은 “초격 스님은 사판과 이판의 길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가진 출가자”라며 “이사무애한 능력을 학원운영에도 잘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깨어 있는 스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초격 스님의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으로 그 밑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봉선사 전문강원,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사찰경영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도심포교당 광명선원 개원에 이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가평 현등사 주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파주 보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중앙종회의원 5선 및 수석부의장, 종책특보단장 등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종교 · 문화 공존하는 공간되길 기대”

조계종 문화창달위 워크숍서
주석 스님 · 범종 스님 등 발제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는 7월 18일 불교문화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현대사회에서 사찰 공간의 역할에 대해 “엄숙한 종교적 공간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그램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적 구성요소가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7월 1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 보리수에서 ‘제3차 문화창달위원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자들은 불교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불교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주석 스님은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불교문화플랫폼으로써의 사찰 공간 재구성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찰 방문 불자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공간의 존재 목적과 기능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사찰을 강조했다. 불교의 이상과 철학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작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 이어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금 조성, 창작자와 향유자를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문화플랫폼 확산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지금은 한국불교가 현실을 직시해 과거 전통적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로 거듭나야할 시기”라며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인류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념으로 널리 등불을 전하기 위한 종단과 대중의 합심된 결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 현황과 육성 지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범종 스님은 오랜 노하우와 풍족한 지원으로 무장, 여러 문화예술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이웃종교를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개인의 원력과 신심에 의지한 예술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지원과 분발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종단 문화정책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봉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차장은 2000년~2019년 20년간의 중앙종무기관 문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어 중장기 정책 과제로 △성보문화재 전산화 △불교문화 학회 설립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 재설계 △불교문화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임은호 기자

“20년간 한결같은 후원 감사합니다”

조계종 복지재단, 7월 20일
20년 후원자 11명에 감사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7월 2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20년 근속 장기후원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감사패를 받은 20년 장기후원자는 총 11명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2명의 후원자가 대표로 참석했다.

20년 4개월 째 후원을 이어온 유종인 후원자는 지난 20년간 전달한 후원금이 41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구룡사 청년회 출신으로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 매해 조금씩 후원금을 늘려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유종인 후원자는 “후원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니 스스로도 뿌듯하다”면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상현 후원자는 20년 5개월 동안 총 468만원을 후원했다. 두 아들을 둔 이상현 후원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이기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한국전쟁 당시 스님 · 불자 인명피해 조사

‘진실과 화해’ 함께 진실 규명
8월 19일까지 피해 자료 취합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한국전쟁 당시 스님과 불자들의 인명피해 현황조사에 나섰다.

총무원 사회부는 “정부위원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사건에 대한 피해 진실규명을 위해 2022년부터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위원회 요청에 따라 총무원은 불교 내 피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전국 조계종 사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중 사찰과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빨치산 포함), 국군, 경찰, 기타(가해자 미상) 등에 의해 학살된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피해 자료를 8월 19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사찰과 문화재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행된 바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다.

당시 인명피해 상황에 대한 제보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전화 02-2011-1829, 팩스 02-735-0614, 이메일 hana22@buddhism.or.kr)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화02-3393-9797, 팩스 02-3393-9859, hskim307@korea.kr) 등으로 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